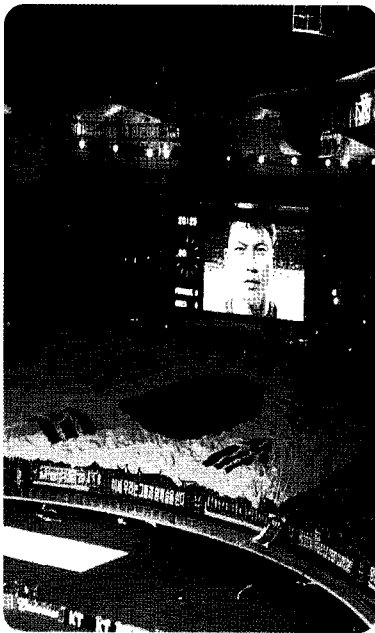


월드컵 성공기원 개최도시 순회 화장실 청결 개방 캠페인(Ⅲ)

이번 캠페인은 협의회가 그동안 진행해온 '아름다운 화장실문화운동'의 성과를 확인하고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협회는 선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또한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스타팅 멤버 소개와 함께 펼쳐지는 대형 축구 물결

5월 16일 부산역 앞 지하상가

부산역 광장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된 캠페인은 비가 내려 전철역이 있는 지하로 이동해 진행되었다. 스타렉스 한 대 분량의 행사 준비 물품을 이리 저리 옮기는데 이미 기진 맥진하였지만 막상 행사가 진행되자 참여하신 분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홍보지를 나누어주며 '청결한 화장실이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한 기본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시민들은 '수고하십니다' 라는 말로 격려해 주었고 우리들의 손길은 더 신바람나게 바빠졌다. 특히 이날은 스코틀랜드와의 평가전이 있어 부산역을 통해 많은 손님들이 부산을 방문하였고 외국인들도 캠페인에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윤상수 지원부장님도 관람차 부산을 방문해 캠페인 현장과 마주쳐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일찍 도착한 협의회 일꾼들은 대한민국 제2도시이자 항구도시인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와 광안리, 태종대를 돌아보았다. 월드컵과 아시안 계임을 준비하는 부산시의 노력을 확인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해운대에는 새로이 건축된 화장실이 깔끔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광안리에는 작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시상을 받은 화장실이 있었다. 이른 시간이라 관리자가 청소를 하는 바쁜 손길도 보았다. 해운대 화장실에서는 용변을 보면서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어린아이들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세면대가 낮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었다.



▲ 울산광역시 남구 남천동 남천공원 화장실 안내 표지판. 남천공원은 2002년 11월 15일 개방화장실로 개편된 곳이다.

하지만 바닥에는 모래가 잔뜩 묻어 있고 세면대 주위 마저도 모래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비단 같은 백사장의 모래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면 지저분하고 위험한 것으로 변한다. 미끄러지기 쉽고, 아무리 청소를 하여도 금방 엉망이 되어 버린다. 입구에 모래를 씻을 수 있도록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을 닦을 수 있도록 수돗가를 만들어 놓았지만 좀 떨어져 있어 특별히 생각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용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 몇몇 이용자는 세면대에 발을 올려놓고 씻는다고 관리자는 말한다. 그래서 세면대 주변에 모래가 많다는 것이다.

나 한사람의 생각없이 저지르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언짢게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태종대의 화장실은 완벽하였다. 산책로를 따라 화장실이 적당한 거리마다 있었고 더구나 보기 좋게 디자인된 화장실 안내표지가 곳곳에 붙어 있어 누구나 불편없이 화장실을 찾아 볼 일을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특히 등대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화장실에는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여기를 이용하세요' 하는 친절 한 안내표지와 함께 찾아간 화장실은 절벽 낭떠러지에 설치되어 있어 용변을 보면서도 멋진 바다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부산시청 하수도과 김이갑계장은 "부산시민과 부산을 방문한 손님들이 쉽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

하며 "잘 정비된 화장실과 더불어 '찾기 쉬운 화장실'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안내 표지를 세워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방향을 밝혔다.

5월 17일 울산 남운프라자앞



캠페인 장소는 울산의 중심시가지가 아니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 활성화된 프라자가 아니어서 유동인구도 별로 없었고 한산한 느낌마저 들었기 때문이다.

또 울산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울산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의 꼭 짜인 계획으로 인해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문민협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열성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개방화장실 입간판을 설치하고 주위의 개방화장실을 조를 나누어 청소하고 근처의 테화강변에서 울산대학교까지 거리를 행진하며 쓰레기 줍기를 하는 등 가장 조직적인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울산문민협 오승태사무국장은 "홍보지를 나누어 주는 것과 함께 실제로 개방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캠페인의 의의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하며 월드컵을 준비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강조하였다. 덕분에



인천·문학경기장-열도에 페이프로테인팅을 하고 온몸에 페이프로테인팅을 한국의 화장실청소를 기념하는 농촌악마들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야 청소대원과 해강공공서비스를 한 전통문화의 모습을 담으려고 외국인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치원생의 교사리소으로 월드컵의 신진들을 지원하며 그런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오승태 사무국장님과 함께 2키로가 넘는 길을 다니며 고생 아닌 고생(?)을 하였다. 또 지역언론과 방송사들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화장실 청결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였다.

5월 21일 광주 우체국앞

새벽같이 수원을 출발하여 도착한 광주 우체국 앞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뺨곡 찬 인파를 비집고 행사부스를 설치하고 사진을 전시하느라 애를 먹었다. 때 이른 여름 날씨에 모두가 땀범벅이 되었는데 마침 옆에서 맥주 시음회를 하고 있어 시원하게 목을 축겼다. 더위를 추스르고 드디어 행사 시작. 광주시청의 양계열과장님(수질보전과)이 참석하시어 격려를 해주셨고, 각 구청의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열정적으로 홍보지를 나누어주며 청결화장실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시민들은 불결화장실 사진 앞에서는 마치 냄새가 난다는 듯이 코를 쥐어 잡고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재미있었다.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시범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양과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까지 화장실

청소는 밑대로 바닥만 청소하는 것을 보았지 악취의 주원인인 배관에 붙어있는 요석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배관클리닝을 하다 잘못하여 고압으로 분사되는 물세례를 받기도 하였다.

죄송해서 어쩔줄 몰라하는데 오늘 화장실 청소 제대로 했다고 결결 웃으면서 넘기셨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시민들의 호응으로 예상보다 일찍 끝나 영국과의 평가전을 보려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식당을 물색하였다. 부산에서 스코틀랜드와의 평가전을 보고 광주에서 영국과의 평가전을 관전하게 되었다. 결과는 빛나는 무승부 월드컵 16강의 서광을 보았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축구가 끝나자마자 스타렉스에 가스를 가득 채우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2시가 넘었다. 월드컵 개최도시 순회 캠페인의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를 위해 도와 주신 도시의 책임자 및 봉사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한국관광공사와 행사에 줄곧 참여해주신 이철희과장님, 안지환과장님, 양숙희 대리님, 송병주대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순회캠페인을 마치고...

이제 월드컵은 1라운드를 마치고 한국은 2승 1무의 성적으로 16강에 골인하였다. 내일이면 이탈리아와의 한판승부를 남겨두고 있다. 비단 축구팀만이 아니라 전국민이 열두번째 선수가 되어 응원을 하고 그토록 바라던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언론들은 한국인들의 길거리 응원문화에 대해 놀라워하며 성숙한 모습에 경탄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응원이 끝나면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치우는 모습이 놀랍고 비가 오는 중에도 뒷사람의 시야를 가리지 않기 위해 우산을 접는 모습을 보며 이제까지 한국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또 수원의 화장실은 L.A. Times에 소개되고 브라질 국영방송 글로브TV가 취재협조를 요청하는 등 세계에 타전되었다. 한국의 발전된 화장실문화에 대한 소개가 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질서 의식은 거리에서 뿐만 아니라 경기장내에서도 빛을 발했다. 입장절차가 까다로와도 누구 하나 불평없이 협조를 하고 꼭 찬 경기장의 하프타임 때도 음료수 판매대와 화장실앞에는 비록 한 줄은 아니지만 길게 줄을 지어 서 있고 간간히 중간에서 한 줄로 서자는 소리가 나온다. 경기장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경기 후에는 의자 밑을 살펴 자기가 먹고 마신 쓰레기를 주워들고 나오는 모습에 내 자신조차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시작된 화장실문화개선운동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꽃을 피우게 된 지금, 작은 정성들이 큰 결과를 이루어 내는 출발이라는 다소 상투적인 진리를 확인하게 된다. 월드컵을 계기로 온 나라에 퍼져나가는 활력이 대한민국의 또 한 단계 도약의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